

Research Center

2015년 9월 30일

투자전략 Daily

- **시황분석**

요우커의 취향

- **이머징마켓 동향**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이머징 혼조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더존비즈온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롯데칠성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은행, 휴대폰, KT, SK텔레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글 로 벌 전 략 | 박중제 ☎ 3276-6560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 T F | 강송철 ☎ 3276-6181

스 몰 캡 전 략 | 정훈석 ☎ 3276-6232

이 머 징 마 켓 | 윤항진 ☎ 3276-6280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채 권 분 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R E I T s | 이수정 ☎ 3276-6252

true**friend** 한국투자 증권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9/18(금)	9/21(월)	9/22(화)	9/23(수)	9/24(목)	9/25(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95.95	1,964.68	1,982.06	1,944.64	1,947.10	1,942.85
	등락폭	19.46	-31.27	17.38	-37.42	2.46	-4.25
	등락종목	상승(상한)	548(0)	245(2)	558(3)	173(6)	451(1)
		하락(하한)	255(0)	570(0)	248(0)	652(0)	356(0)
	ADR	122.04	123.77	120.22	104.70	103.04	97.93
	이격도	10 일	102.80	100.76	101.12	99.16	99.36
		20 일	103.94	101.96	102.50	100.43	100.46
	투자심리	60	60	7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524	376	696	857	921	790
	거래대금 (십억 원)	6,808	3,858	4,535	5,434	5,081	4,177
코스닥	코스닥지수	690.18	688.90	693.67	680.28	683.88	682.70
	등락폭	19.13	-1.28	4.77	-13.39	3.60	-1.18
	등락종목	상승(상한)	548(6)	245(10)	558(6)	173(8)	451(5)
		하락(하한)	255(0)	570(0)	248(0)	652(0)	356(0)
	ADR	128.99	131.64	123.72	108.80	106.70	100.75
	이격도	10 일	103.74	102.92	102.79	100.51	100.81
		20 일	103.73	102.95	103.29	101.20	101.66
	투자심리	60	60	7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728	718	931	1,028	869	630
	거래대금 (십억 원)	4,366	3,520	4,009	4,126	3,659	2,886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355.1	894.3	864.3	239.0	106.5	192.9	60.0	9.6	256.318
	매도	2,268.9	1,197.5	709.8	122.2	135.6	176.0	58.9	13.7	203.4
	순매수	86.1	-303.1	154.5	116.8	-29.1	16.9	1.1	-4.1	52.9
	9월 누계	-102.8	-1,916.4	2,105.5	396.5	139.9	469.8	-158.0	20.4	1,236.8
	15년 누계	3,415.4	472.3	-4,645.3	-4,761.2	-862.8	-4,154.1	-861.7	-920.5	6,914.9
코스닥	매수	2,657.0	150.5	88.3	18.5	11.4	28.3	4.6	2.0	23.5
	매도	2,580.8	180.0	127.6	23.6	20.2	37.8	13.5	3.8	28.7
	순매수	76.2	-29.5	-39.3	-5.1	-8.8	-9.5	-8.9	-1.9	-5.2
	9월 누계	760.1	-145.9	-517.3	-152.3	-41.3	-203.9	-35.3	3.4	-87.9
	15년 누계	1,811.6	-772.3	582.0	-529.1	348.8	772.1	-84.8	-274.1	349.1

요우커의 취향

2015년 Target KOSPI	2,300pt
12MF PER	10.15배
12MF PBR	0.89배
Yield Gap	8.2%P

- ▶ 중국 여행 성수기: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 효과
- ▶ 요우커의 취향: 한국행 선호, 개별여행 증가, 쇼핑 중심적
- ▶ 요우커의 소비모멘텀: 화장품, 의류 관련 대형주에 우호적

■ 중국, 황금연휴의 시작

중국의 여행 성수기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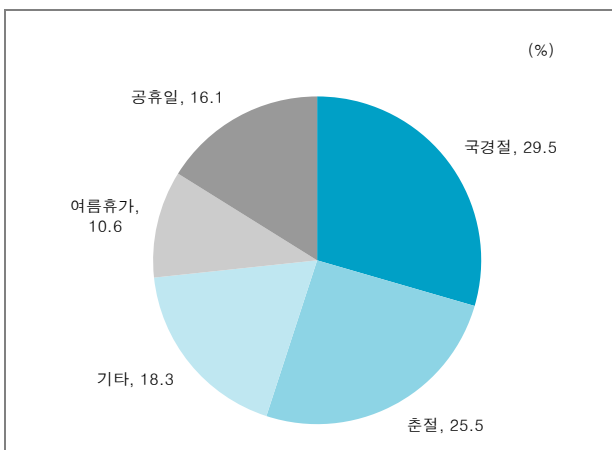
중국은 매년 두 번씩 7일간의 긴 연휴를 맞이한다. 바로 춘절과 국경절 연휴다. 중국인들은 이 기회를 틈타서 국내외 곳곳으로 떠날 준비를 한다. 춘절과 국경절 기간의 여행 욕구는 다른 공휴일인 신정(1월), 청명(4월), 노동절(5월), 단오(6월), 중추절(9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춘절과 국경절은 중국 여행 성수기의 양대산맥이다. 여행사업자 입장에서는 국경절이 좀 더 중요하다. 중국인 여행자(이하 요우커)의 이동이 춘절보다 국경절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경절 연휴의 요우커 수는 4.75억명으로 춘절 연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런 현상은 2008년 이후로 매년 확인된다.

올해 국경절은 예년보다 특별하다. 이유는 중추절과 국경절의 짧은 간격에 있다. 중국은 우리의 추석과 동일한 중추절에 쉰다. 그런데 이번 중추절은 9월 26~27일이었다. 만약, 중추절과 국경절 사이에 휴가를 내어 징검다리 연휴를 붙인다면, 요우커는 최장 12일의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긴 휴가는 요우커의 소비 극대화해 해석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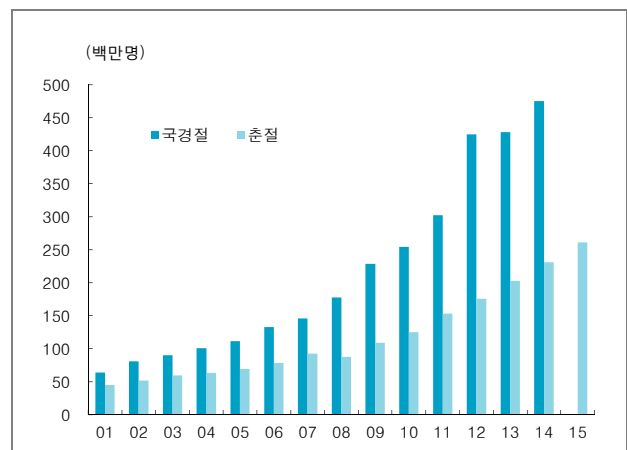
요우커가 선호하는 국가들은 이번 국경절 특수를 관광수입으로 연결하기 위해 준비가 한창이다. 올해 메르스 확산으로 중국 인바운드 사업을 망쳐버린 한국도 요우커 모시기에 적극적이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대표적이다.

[그림 1] 요우커의 여행 계획 시기



자료: WTCF,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중국 연휴 기간의 여행자 수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요우커의 선호 여행지는 아시아와 유럽

■ 요우커의 취향과 특성

베이징에 위치한 세계관광도시연합회(World Tourism Cities Federation: WTCF)에 의하면, 중국의 아웃바운드 여행객은 지난해 1억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세계 여행객의 10%에 달하는 수치다. 전세계에서 요우커가 보이지 않는 곳은 없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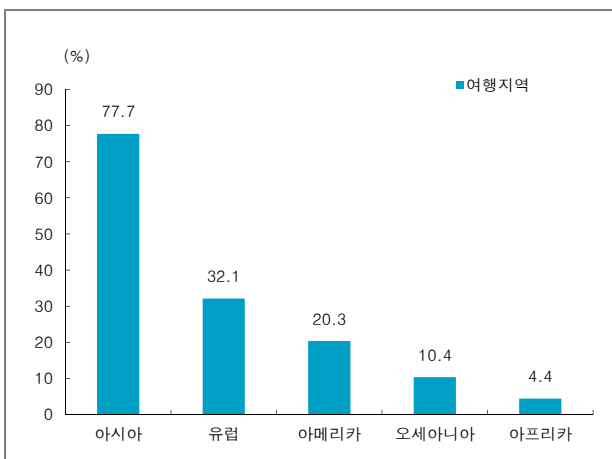
우선 요우커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WTCF가 올해 9월에 발표한 중국 아웃바운드 여행객 설문조사를 살펴보자. 동 조사는 중국 아웃바운드 여행객 1만 7,180명을 대상으로 올해 4~5월에 진행된 것이다. 여기에는 요우커의 선호 여행지, 연령대, 소득수준, 여행활동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WTCF 설문조사에 의하면, 요우커가 선호하는 여행지는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아시아의 경우, 공통의 가치관과 지리적 이점이 크게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물리적 거리를 단거리와 장거리로 나누면, 단거리 최선호 여행지는 한국의 서울, 장거리는 프랑스의 파리로 나타났다. 두 도시의 공통점은 유행을 선도하고 요우커의 쇼핑이 용이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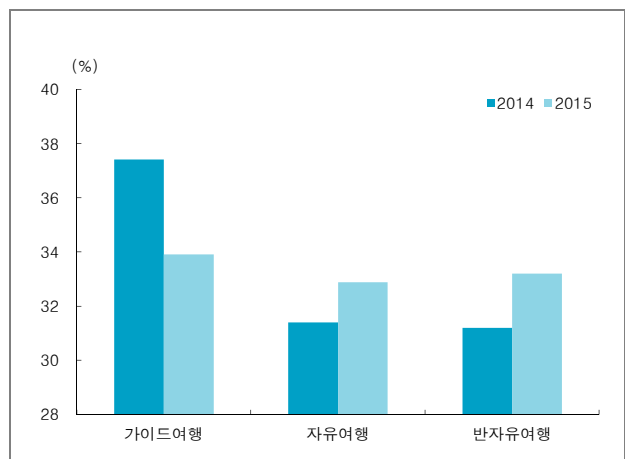
요우커의 여행 형태를 보면, '갯발여행'으로 대표되는 가이드여행의 비중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이드여행의 빈자리는 자유여행과 반자유여행(자유일정이 포함된 가이드여행)으로 채워졌다. 스마트폰과 각종 여행용 앱의 등장으로 요우커의 독립적인 여행이 가능해진 결과다.

[그림 3] 요우커의 주요 여행지역



주: 복수응답
자료: WTCF,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요우커의 여행 형태



자료: WTCF, 한국투자증권

<표 1> 요우커 선호 여행지 상위 5위

거리 기준	1위	2위	3위	4위	5위
단거리 여행지	서울(한국)	방콕(태국)	도쿄(일본)	오사카(일본)	나고야(일본)
장거리 여행지	파리(프랑스)	런던(영국)	시드니(호주)	LA(미국)	로마(이탈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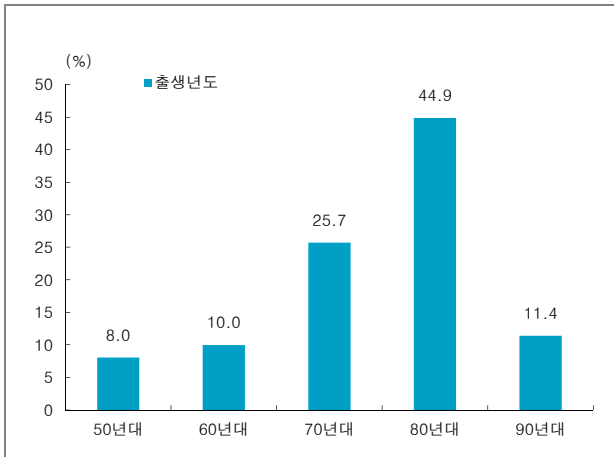
자료: WTCF, 한국투자증권

요우커 대다수는 80년대생 출신

현재 요우커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태어난 80년대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바링허우 또는 소황제로 불리는 세대로 중국의 소비를 이끄는 그룹이다. 그 뒤로는 고속성장의 수혜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70년대생이 포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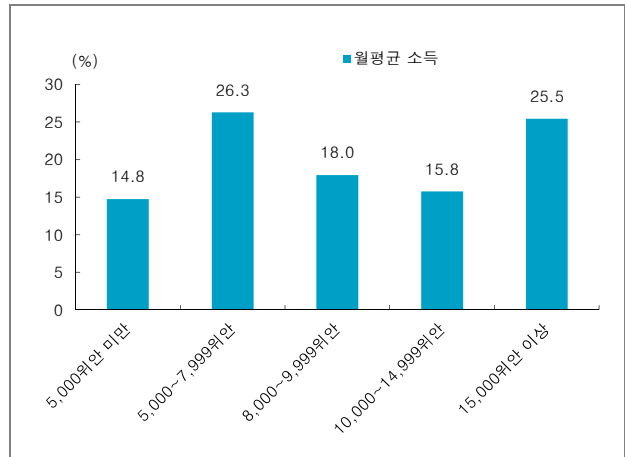
소득 기준으로는 월평균 5,000~7,999위안(93~150만원)을 받는 요우커의 비중이 26.3%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월평균 소득 15,000위안 이상 그룹은 전체 요우커의 25.5%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그림 5] 요우커의 연령 분포



자료: WTCF,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요우커의 월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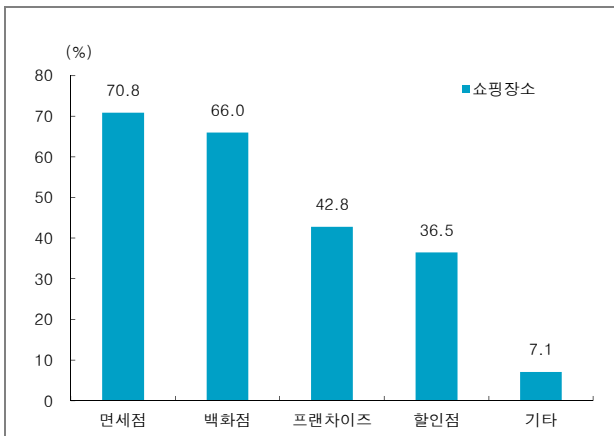
자료: WTCF, 한국투자증권

요우커의 쇼핑 장소는 면세점과 백화점

요우커의 여행활동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쇼핑이다. 쇼핑을 위해 바다를 건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요우커는 어디서 쇼핑을 할까? 동 조사에서 요우커가 가장 선호하는 쇼핑장소는 면세점과 백화점으로 확인됐다. 과거와 변화가 없다. 반면, 프랜차이즈나 아울렛 같은 할인점의 비중은 여전히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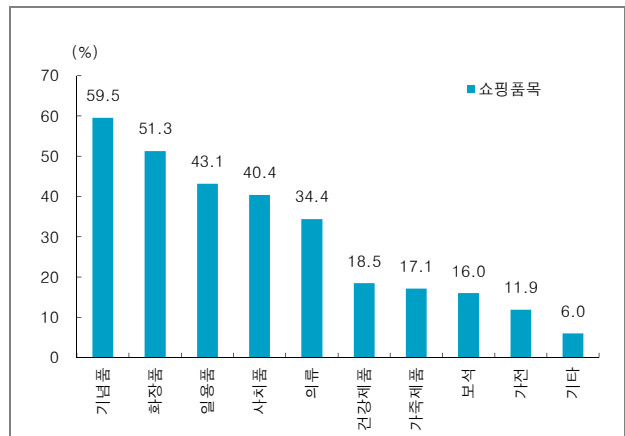
쇼핑품목은 대부분 기념품, 화장품, 일용품이다. 휴대가 간편하고 선물하기에 부담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보석, 가전 등은 해외 구매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요우커의 쇼핑장소



주: 복수응답
자료: WTCF, 한국투자증권

[그림 8] 요우커의 쇼핑품목



주: 복수응답
자료: WTCF,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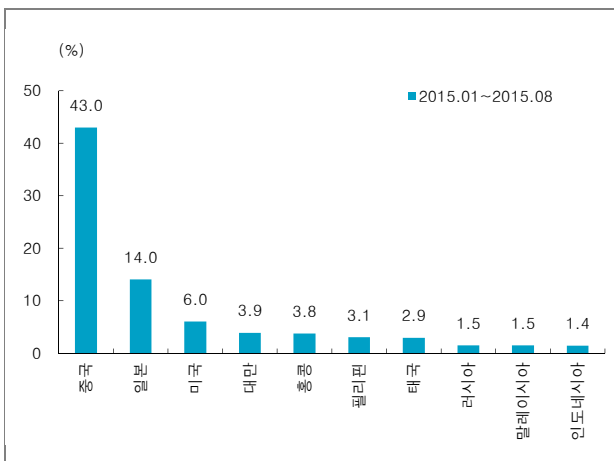
■ 요우커, 인바운드 여행의 핵심

한국 인바운드 여행객 요우커가 절대 다수

한국 여행산업에서 요우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5월 말에 확산된 메르스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8월까지의 인바운드 여행객 중에서 요우커의 비중은 43%에 달했다. 입국자 비중 2~10위 국가의 인바운드 여행객을 모두 합쳐도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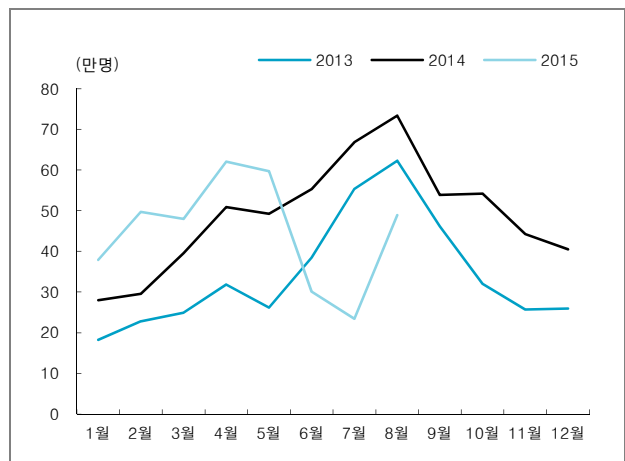
메르스 여파가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갑작스럽게 확산된 전염병으로 여름 성수기인 6~7월에 요우커 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8월 들어 요우커 사이에 메르스가 진정되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인바운드 여행객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9월 중추절과 10월 국경절 연휴로 요우커의 유입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9] 국가별 외국인 입국자 수 비중



주: 한국계 중국인 제외 |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요우커의 월별 입국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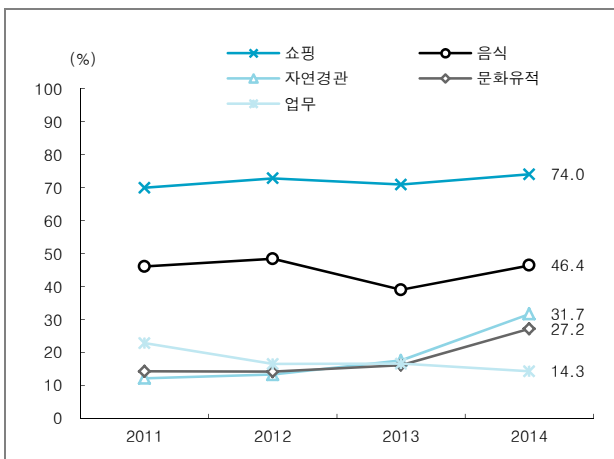


주: 한국계 중국인 제외 |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투자증권

요우커의 방한활동 쇼핑과 음식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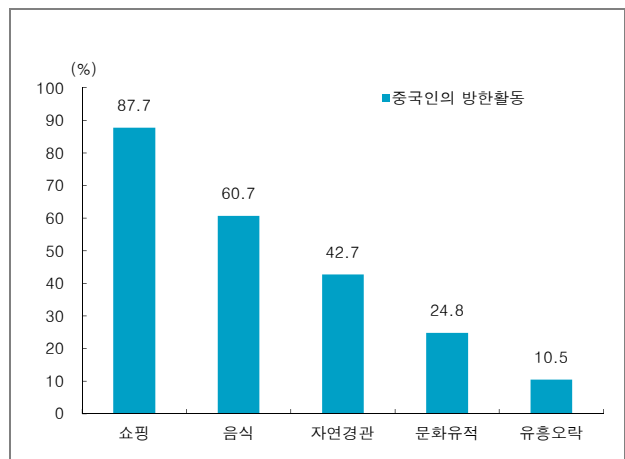
요우커의 국내 복귀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점검할 사항은 그들의 취향 변화 여부이다. 요우커들은 타국적 관광객보다 쇼핑과 음식에 집중하는데 이것이 바뀔 경우, 한국의 여행산업 지도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WTCF 자료에서 확인했듯이 요우커들의 취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여전히 쇼핑과 맛집 탐방에 열광한다.

[그림 11]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활동



주: 복수응답 |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요우커의 방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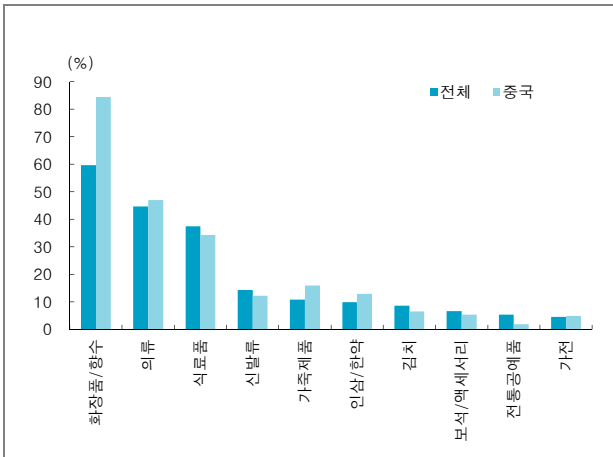


주: 2014년기준, 복수응답 |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투자증권

요우커의 쇼핑비 총지출의 약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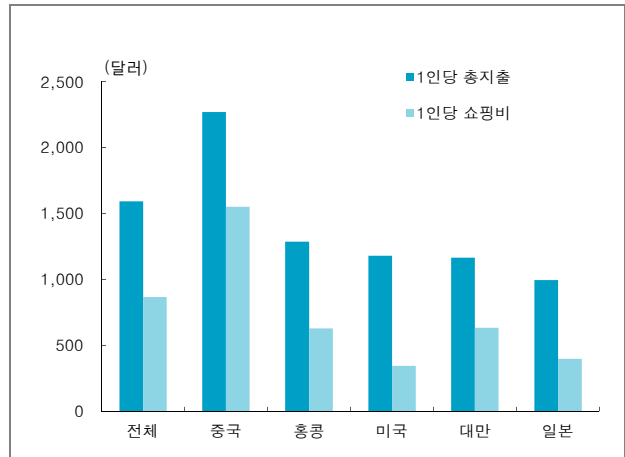
취향에 변화가 없다면, 돌아온 요우커는 기존과 동일한 소비패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화장품, 향수, 의류 등에 대한 집중적 소비다. 특히, 요우커의 총지출에서 쇼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평균인 54%를 크게 상회하는 70%라는 점에서 중국 인바운드 소비와 관련된 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도래할 수 있다.

[그림 13] 전체 여행객과 요우커의 주요 쇼핑 품목



주: 2014년 기준, 복수응답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투자증권

[그림 14] 개별여행객 1인당 총지출 및 쇼핑비



주: 2014년 기준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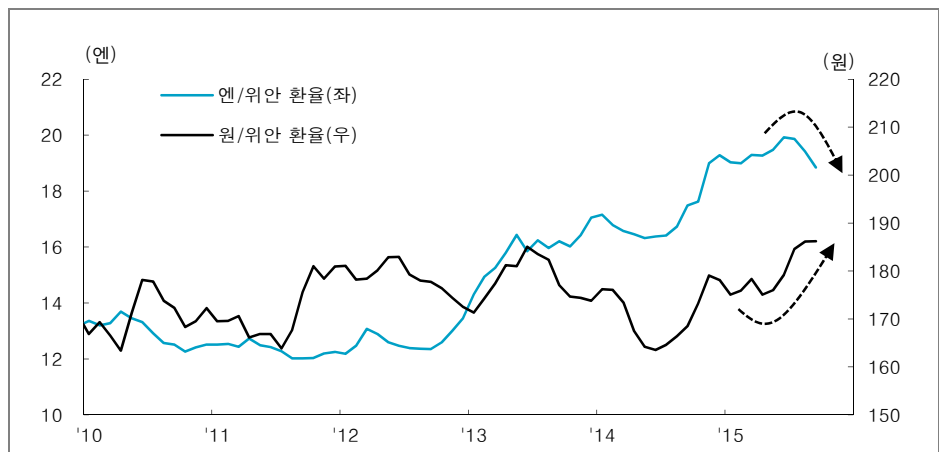
■ 요우커 모멘텀은 있다

요우커의 한국행 자극하는 요인 발생

중국 국경절 연휴는 내일부터 본격 시작되지만, 우리사회의 반응은 이미 뜨겁다. 중추절과 연계해 한국에 미리 입국한 요우커 때문일 것이다. 면세점, 백화점 등 주요 유통채널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시작했고, 한국관광공사는 사장 주도로 요우커 환영행사를 전개했다. 언론 역시 명동과 동대문을 가득 메운 요우커를 집중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국경절 효과에 힘입어 10월에는 요우커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몇 달간 한국행을 기피한 요우커에게 1)메르스 진정, 2)대규모 할인, 3)유류비 감소, 4)우호적 환율은 한국을 매력적인 여행지로 재부각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림 15] 엔/위안 환율과 원/위안 환율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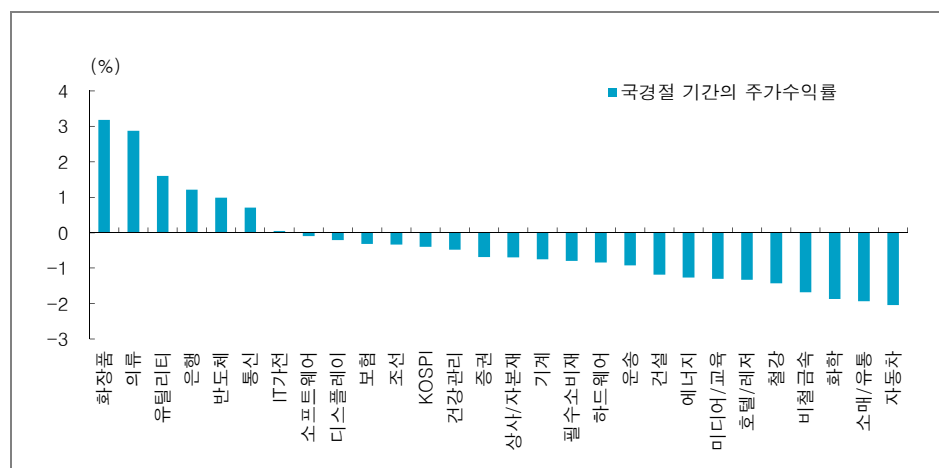
요우커 모멘텀과 관련해 화장품, 의류 업종 주목

한편, 주식시장에서 요우커 소비의 직접적인 수혜 업종은 화장품과 의류 업종을 들 수 있다. 동 업종의 제품들이 요우커가 가장 선호하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경절 연휴 기간에 화장품과 의류 업종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다. 최근 5년 동안 화장품과 의류 업종의 평균수익률은 시장수익률을 각각 3.6%p, 3.3%p 상회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과거와 유사한 흐름을 기대할 만하다.

다만, 요우커 모멘텀과 관련하여 화장품, 의류 업종에 관심을 갖더라도 종목은 대형주 위주로 압축할 필요가 있겠다. 중소형주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남아있고, 변동성도 높아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글로벌 증시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연휴 이후 재개장하는 한국 증시에서도 리스크 관리와 수익률 방어가 중요하다. 곧 요우커 모멘텀이 발생하겠지만, 수혜주에 대한 선택은 기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높이지 않는 수준에 그칠 필요가 있다.

[그림 16] 국경절 기간의 주요 업종별 수익률



주: Wisefn 업종 기준, 최근 5년간의 단순평균 수익률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이머징 혼조

- ▶ 상해종합지수는 1.6% 하락, 미국 금리인상 및 IPO재개 가능성 확대로 자금유출 우려고조
- ▶ 홍콩H지수는 0.5% 반등, 저가매수세 유입 및 역대 위안화 환율 강세로 상승
- ▶ 자카르타종합지수는 0.8% 하락, 1998년 이후 환율 역대 최고치 경신하며 약세
- ▶ VN지수는 강보합세로 마감, 통화가치 상승, 물가안정세 유지 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상승

상해종합지수는 1.6% 하락,
전자정보, 항공우주, 화학섬
유 등 업종 약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1.6% 하락한 3,092p로 마감했고, 주간 단위로는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미국 연준 엘런의장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혀 증시는 약세로 출발했고, 오후에 들어 낙폭을 확대해나갔다. 거래대금은 2,490억위안으로 직전일보다 조금 늘었다. 중국 감독당국이 조만간 IPO를 재개할 것이란 루머, 8월 월간 사상 최대규모(1,416억달러)의 자금 유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됐다.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불확실성에 대비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하며 지수 약세를 견인했다. 국무원에서 혼합소유제 지도의견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금주 강세를 보였던 전자정보, 항공우주, 화학섬유, 엔터테인먼트 등 업종들의 낙폭이 4% 이상에 달했고 차스닥지수도 금일 4% 하락한 2,021p로 마감했다. 대부분 업종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석유와 은행주가 상승하며 지수 낙폭을 제한했다. 증추철로 후강통 거래는 금일부터 28일까지 거래 정지된다.

홍콩H지수 0.5% 상승,
은행, 전자재, 보험, 증권 등
업종 강세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0.5% 상승한 9,512p로 마감했고 주간 단위로는 5.2% 하락했다.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엘런의 발언, 금융기관들의 올해 홍콩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부정적인 소식에 지수는 오전까지 낙폭을 확대해나갔다. 그러나 오후에 들어 은행주가 반등하며 1%까지 급등했다가 장 막판에 반등폭을 축소했다.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 역대 위안화 환율 강세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4대 은행, 전자재, 보험, 증권 등 업종들이 상승한 반면 직전일 강세였던 종목들은 하락 마감했다.

자카르타종합지수 0.8%
하락, 헬스케어, 금융, 정보
기술, 소재 등 업종 약세

■ 인도네시아 시장

자카르타종합지수는 0.8% 하락한 4,209p로 마감했다. 수출증가율 둔화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됐고, 미국 금리의 연내 인상가능성 확대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루피화 환율이 상승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특히 1998년 이후 환율이 가장 크게 상승하는 등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인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됐다. 업종별로는 헬스케어, 금융, 정보기술, 소재 등 업종이 약세를 보였다.

VN지수 강보합세 마감,
헬스케어, 음식료, 소재, 소
비재 등 업종 강세

■ 베트남 시장

VN지수는 장중 좁은 범의내 등락을 반복한 끝에 강보합세로 마감한 570P를 기록했다. 동화 가치 상승, 물가 안정세 유지, 해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 진정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반면 금 가격 상승, 차익실현 매물 증가 등이 부정적이었다. 일부 대형주가 하락한 반면 중소형주가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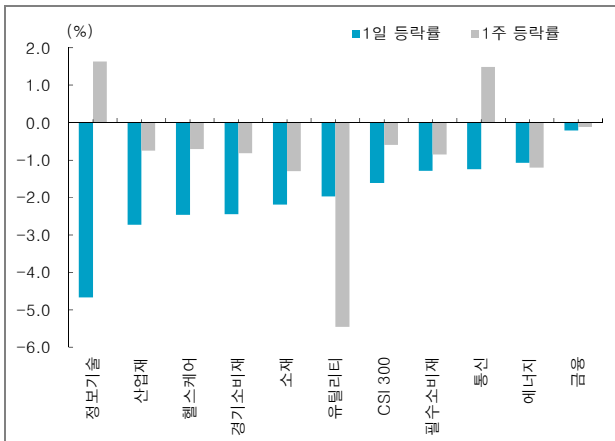
주요 이머징마켓 뉴스

시장 구분 주요 내용

중국	국무원, 혼합소유제 지도의견 발표, 전력, 석유, 가스, 철도, 항공, 통신, 군수 우선 개혁 국무원, 국유기업개혁의 방안으로 외국자본 구조조정, 통폐합에 참석 가능하도록 개방 예정 발개위, 빅데이터 발전촉진 행동요강 발표, 빅데이터 응용발전으로 데이터 강국 건설할 것
브라질	통계국, 8월 실업률 7.6% (컨센서스 7.7%, 직전치 7.5%%)
브라질	통계국, 9월 넷째 주 CPI 0.6% (컨센서스 0.5%, 직전치 0.5%)
러시아	통계국, 9월 셋째 주 외환 및 금 보유고 3,690억 달러 (직전치 3,651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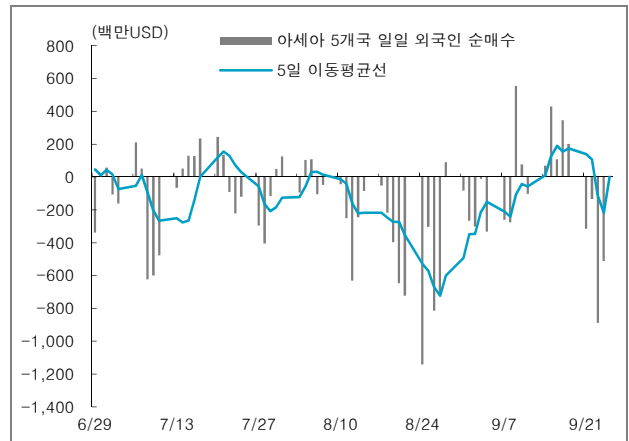
◆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그림 1] 중국 CSI300 업종별 등락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아세아 5개국*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개국의 달러자금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9/25(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3,092.35	-1.60	-0.18	-3.54	-4.40
홍콩 H	9,512.26	0.45	-5.15	-2.35	-20.63
중국 차스닥	2,020.97	-4.06	1.90	1.21	37.32
인도 SENSEX	25,863.50	0.16	-0.39	-1.60	-5.95
인도네시아 JCI	4,209.44	-0.82	-3.86	-6.66	-19.47
태국 SET	1,377.62	0.38	-0.91	-0.35	-8.02
베트남 VN	570.38	0.02	0.73	1.00	4.54
MSCI 이머징마켓	785.68	-0.77	-5.32	-4.04	-17.84

주: 25일 오후 6시 0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글로벌 증시 약세 속 동반 하락

- 미국 증시는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연내 금리인상 재천명 소식 등으로 사흘 연속 하락 마감. 강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로 하락 반전 후 1,940P선을 내주며 약세 흐름을 보였으나, 오후들어 낙폭을 줄이며 1,942P로 마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로 하락반전 후 하락폭을 확대, 1% 이상 하락하며 장중 680P선을 내주기도 했으나, 장 막판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과 개인 매수세로 하락폭을 대부분 줄이며 682P로 마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미국과 유럽증시에 이어 중국 증시까지 약세를 보이며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SK텔레콤으로의 피인수 소식에 SK컴즈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솔브레인으로 피인수된 제넥도 강세를 보임. 삼성의 공격적 인수합병(M&A)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피인수 기대감이 재부각된 인피니트헬스케어가 급등했으며, 인쇄회로기판 전문 제조업체인 타이거일렉은 코스닥 신규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 또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현대차 주식 매수로 인한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현대차 그룹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폭스바겐의 대규모 리콜 사태와 함께 애플의 전기차 출시 소식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미 정부가 전투기 개발 관련 핵심기술 4가지를 이전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항공우주가 급락했으며, 감자 검토 소식에 아이팩토리가 하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SK컴즈(066270) ▶9,580(상한가)	SK텔레콤으로의 피인수 소식에 상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텔레콤과 SK플래닛이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SK텔레콤이 SK플래닛이 보유한 동사의 보유지분 전량(64.5%)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 동사는 SK플래닛의 자회사이자 SK텔레콤의 손자회사로 이번 계약을 통해 SK텔레콤이 동사의 최대주주로 등극
타이거일렉(219130) ▶7,430(상한가)	신규 상장 첫날 상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검사용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로 코스닥 신규 상장 첫날 공모가를 소폭 밑도는 시초가를 형성했으나 개인 매수세가 집중되며 상한가 - 동사의 PCB는 티에스이나 윌테크놀로지 등을 통해 완제품 형태로 제조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사용처로 공급됨
현대차그룹주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그룹주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선 부회장이 전날 장 마감 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현대차 주식 316만4천550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에 그룹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고조되며 강세 - 현대글로벌비스(086280, +7.33%), 현대모비스(012330, +3.49%), 현대차(005380, +2.53%), 기아차(000270, +0.59%) 등 강세
전기차 관련주	폭스바겐 여파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여파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애플이 2019년쯤 전기차인 '애플카'를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에 강세 - 우리산업홀딩스(072470, +19.13%), 상신이디피(091580, +12.30%), 일진머티리얼즈(020150, +6.71%), 피앤이솔루션(131390, +6.32%), 인지컨트롤스(023800, +6.29%)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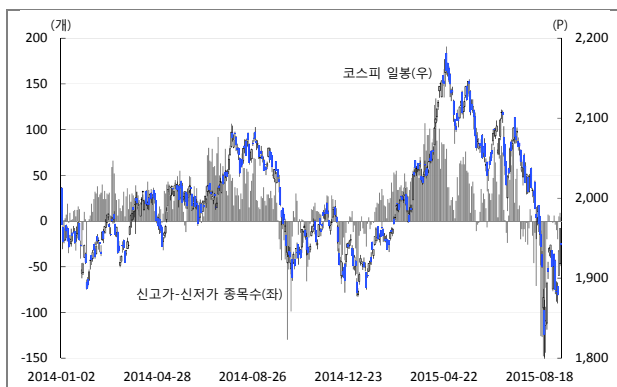
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및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 지난주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듯 했으나,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 여기에 중국의 9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가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며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임. 아울러, 독일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이 디젤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며 독일 증시를 비롯해 유럽증시가 하락세를 보임
- 국내 증시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미국과 유럽, 중국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투자심리가 위축. 코스피는 지난주 1990P선에서 1,940P선까지 추락했으며, 코스닥도 680P선으로 내려앉으며 한주를 마감
- 사후 면세점 사업 성장 기대감에 엘아이에스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소비패턴 변화로 렌탈, 리스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되며 AJ네트웍스가 신고가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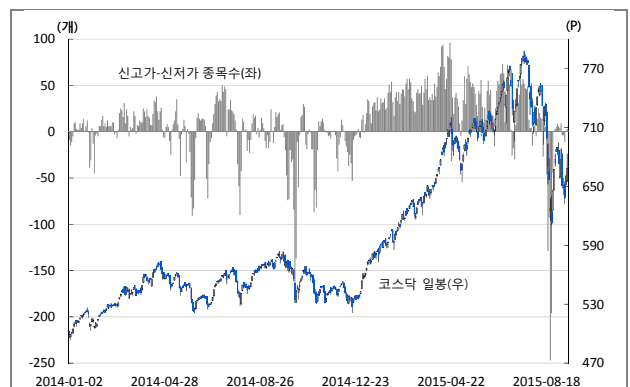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유가증권	IT	전기전자	성문전자	2,000	11.7	소재	화학	태경화학	7,300	10.4
	소재	건설업	고려개발	5,440	28.5					
코스닥	IT	컴퓨터서비스	브리지텍	6,640	2.5	금융	금융	씨엑스씨종합캐피탈	1,550	55.0
	IT	반도체	아이앤씨	6,590	29.5	산업재	금속	갑을메탈	683	35.5
	IT	반도체	엘아이에스	34,700	14.0	에너지	도매	위드원네트웍	4,060	42.2
	IT	전기전자	TJ미디어	3,965	27.5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유비케어	3,380	5.0
	IT	디지털컨텐츠	바른손이앤에이	2,700	19.2	경기관련주	섬유의류	우성I&C	2,610	12.7
	IT	통신장비	휴맥스	19,000	3.3					

주) 상기 종목들은 9월 25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코스피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코스닥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단기 유망종목: 더존비즈온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더존비즈온 (012510)	21,300 (+2.2)	20,850 (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1만 중소/중견 기업과 9천여 개의 세무회계사무소를 핵심 고객으로 확보 -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으로 클라우드 사업이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면서 어닝 모멘텀 본격화 예상 - 클라우드 유지 보수액은 기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대비 3배 이상 높아 향후 외형 성장을 견인할 전망
피에스텍 (002230)	7,840 (+9.2)	7,180 (9/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스마트 그리드 사업 활성화에 따른 디지털 전력량계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지속 - 스마트미터기 매출 비중 증가와 건설사로의 공급물량 확대를 통한 실적 개선세 지속 전망 - 1천억원을 상회하는 순현금을 바탕으로 설비투자과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성 강화 예상
농심 (004370)	355,000 (-4.3)	371,000 (9/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곡물 가격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재료비 안정과 해외시장 성장에 따른 실적 개선세 지속 - '짜왕' 출시를 기반으로 라면시장 점유율 회복에 성공한 가운데 프리미엄급 제품 라인업 강화 예상 - 하반기에도 ASP 상승과 제품믹스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유비벨록스 (089850)	17,700 (+9.9)	16,100 (9/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매출액은 888억원(+43.5% YoY), 순이익은 76억원으로 2년간 누적적자 55억원을 뛰어넘는 흑자전환에 성공할 전망 - 중국/미국의 금융IC칩 교체 수요 집중공략과 공장 및 대형쇼핑몰 In-door LBS(Location Based System) 시스템 구축에 주목할 필요. 미주향 스마트카드 매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진출과 신사업인 LBS플랫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
이엔에프테크놀로지 (102710)	21,000 (-4.1)	21,900 (8/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케미칼 전문 생산기업으로 2014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 식각액 부문의 가파른 성장세 확인 - LCD용 신너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80%로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 진출로 매출처 다변화. 하반기에도 중국 자회사의 높은 성장세와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MDS테크 (086960)	25,400 (-2.7)	26,100 (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베디드 시스템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소프트 전문기업으로 Connected Car, infotainment Car 개발 경쟁 가속화에 따른 수혜 예상 - 다양한 산업들과 IT와의 융합화를 감안할 때 임베디스 소프트웨어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세에 따른 구조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외산 SW를 대체하는 국방사업 수주 확대와 고객사의 빅데이터 도입 확산에 따른 성장 모멘텀도 내재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롯데칠성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5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롯데칠성 (005300)	2,325,000 (+0.3)	2,319,000 (9/23)	2,407	177	118	86,667	2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시장의 저도화와 다양화 추세를 주도하며 시장 경쟁력 강화와 시장 점유율 확대 예상 - 맥주(Kloud)사업 성장과 향후 계열사 지분 및 서초동 부지 가치 현실화에 대한 기대 유효 - 음류와 주류시장의 성장으로 실적 개선 모멘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으로 투자 유가증권의 가치 부각 가능성 				
SK텔레콤 (017670)	262,000 (+6.5)	246,000 (9/07)	17,169	1,849	1,800	25,027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완화되는 가운데 자사주 매입 가능성, 배당금 증액 가능성 등 주주우선시 정책 강화에 대한 기대 유효 - 비통신사업의 성장성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트래픽 증가, 마케팅 비용 감소 등으로 3분기 수익성 개선 예상. 방통위 제지(10월1일~7일 영업정지)에 따른 수익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현대위아 (011210)	125,500 (+19.5)	105,000 (9/03)	8,022	502	415	15,616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자동차 수요 둔화와 현대/기아차의 판매량 감소로 수익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증설과 점유율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엔진 믹스 개선과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성장성, 환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등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삼성전자 (005930)	1,112,000 (+2.1)	1,089,000 (9/01)	197,087	26,512	19,497	143,876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IT제품 수요의 전반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부문의 영업이익률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 20나노공정 비중이 4분기 70%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세 지속 예상 - 하반기 시스템LSI부문의 실적 개선, 역사적 최저 수준의 밸류에이션, 우호적인 환율 환율, 주주환원정책 실시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투자매력도 제고 가능성 상존 				
강원랜드 (035250)	42,650 (+3.0)	41,400 (7/31)	1,649	591	461	2,274	1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르스 영향에 따른 일시적인 실적 둔화보다는 성수기 진입, 테이블 증설효과, 가동률 상승효과, 인력확충 효과 등을 주목할 필요.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과 배당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 제2 영동고속도로 개통, 평창올림픽 개최, 워터월드 사업, 중국인 방문객 증가 등 장기 성장 잠재력 확보 				
코웨이 (021240)	83,300 (-14.6)	97,500 (7/20)	2,302	432	325	4,383	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가전 렌탈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환경가전 렌탈 부문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렌탈 가입자 순증세와 ARPU(가입자당 평균 렌탈요금) 상승세 지속 예상 - 외부 변수에 강한 비즈니스 및 수익 구조, 안정적인 국내외 성장 모멘텀, 판매채널 다각화, 배당 매력도, 해외사업의 잠재력 등을 주목할 필요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강원랜드, 삼성전자, 현대위아, SK텔레콤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앞두고 구체화되는 규제개혁의 의미

■ 금융개혁 차원의 규제 변화로 투자 심리 개선 예상

올해 4월에 출범한 금융개혁회의의 중요한 결과물이 구체화되고 있다. 두 가지에 주목한다. 하나는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 발표한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나머지는 “은행 수익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다. 연초 이후 밝힌 규제완화 방향에 대해 우리는 금융업종 내에서 은행(지주)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불행하게도 은행(지주) 주가는 우리 전망에 비해 부진한 편이다. 그렇지만 실적과 괴리된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심리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 전망을 지속하는 근거는 1) 1~2분기 이어 3분기에도 양호할 실적, 2) 규제변화와 맞물린 양호한 실적이 배당 제고로 연결될 가능성의 상승, 3) 12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발급 후의 은행(지주) 업종에 대한 장기 전망의 변화가 마냥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최선호 종목은 하나금융(086790, 매수/TP 40,000원)이다. 은행 자회사 합병으로 내년 이후 장기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고, 자본비율 및 지주사 규제 등의 완화에 따른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이다. 나머지 ‘매수’ 의견 종목 중에서는 DGB금융지주(139130, 매수/TP 18,700원), 신한지주(055550, 매수/TP 63,000원), BNK금융지주(138930, 매수/TP 21,000원), KB금융(105560, 매수/TP 59,000원)의 순서다.

■ “이제 그림자 규제 안하겠습니다”라는 금융당국의 공언

그림자규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임의적 협력에 기초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지도”와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법령·규정에 대한 설명·통보, 주의환기, 이행촉구 등의 감독행정”을 뜻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규제에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지만, 명시적 법규가 아니어서 비공식적 의사소통을 통한 규제행위로 간주된다. 감독당국 내부의 팀장 수준 결재만으로도 실시될 수 있고, 어길 경우 다른 법규의 포괄적 조항을 근거로 제재를 가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금융회사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자율권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관행으로 꼽혀왔던 터였다.

이 같은 관행을 바꾸기 위해 당국은 ‘공문시행, 절차준수, 제재금지’라는 행정지도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12월에 명문화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변화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문서를 통한 공식적 의사소통을 정착시켜 금융규제·감독을 규정대로 실시한다”라는 뜻이다. 현재 수준에서 이 같은 태도 변화가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이유를 꼽는다면, 1) 규제 작동방식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불신 누적과 불확실성의 완화, 2) 재무적 여건에 따른 배당 정책 발취 가능성, 3) 자본비율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해소이다.

■ 행정지도 남발을 통한 비공식적 규제감독은 한국 자본시장 전반의 불신으로 연결

취지대로 시행된다면 금융산업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불신과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금융당국뿐 아니라, 정부의 규제당국 전반에 만연한 비공식적 규제는 한국사회 전반의 불투명성을 높이는 부작용도 가져왔고, 자본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부 금융기관은 부진한 경영 성과를 규제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리스크 관리도 규제준수 차원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업무영역 및 방식을 둘러싼 경영혁신도 규제 불확실성 탓에 동기부여가 어려웠다. 촘촘히 짜여진 규제의 틀에서 중요한 경쟁력은 혁신이 아니라 규제당국에 대한 로비활동이었다.

■ 규정과 문서 중심의 공식적 의사소통 중심의 규제는 배당정책에 대한 불간섭도 포함

현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배당정책의 변화 가능성이다. 배당결정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선제적 개입은 없어져야 한다. 현재 은행(지주), 보험사들은 결산 전에 배당 예상액을 금융감독원에 미리 제출한다고 알려져 있다. 배당 계획을 미리 제출해 당국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법규에도 없다. 주식회사의 배당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건전성 및 자본비율 규제로 규정되는 주요 제약조건 내에서 배당은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주주총회에 책임을 질 노릇이다. 그러나, 현실은 금융감독원이 설립 목적(금융산업 선진화, 금융시장 안정 도모,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과 부여된 기능(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 등)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강화되는 최소자본비율 규제도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

또 하나 현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자본정책의 변화 가능성이다. 2019년까지 준수해야 할 최소 비율은 세 가지다. 이 중 Basel III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CET1 ratio),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 추가자본규제’는 확정되었고, 남은 것은 경기대응완충자본(CCB)이다. CCB의 범위는 0~2.5%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해외사례를 감안하면 1%p를 크게 넘기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한국의 은행(지주)가 2019년까지 준수해야 할 최소비율은 대형은행(지주)의 경우 9%(=Basel III 7% + D-SIB 1% + CCB 1%), 그렇지 않으면 8%(=Basel III 7% + CCB 1%)이다. 최악의 경우 CCB가 2.5%로 선택된다 하더라도 각각 10.5%, 9.5%면 충분하다.

한국 은행(지주) 투자자는 최소비율 규정 외에 충족 시점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했다. 감독당국이 비공식적 규제를 통해 “최소비율+알파” 수준의 자본비율을 가급적 빨리 달성하되, 그 전에는 배당을 억제하도록 중용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당국은 규정대로 2019년까지 충족하면 충분하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작년까지는 은행(지주)의 자본비율 규제와 관련해 보수적 태도를 권했지만, 연초 이후 권고를 바꾸었다. 궁극적으로 준수해야 할 비율을 당장 적용한다면 적정 수준의 배당을 시행할 수 있는 곳은 KB금융, 신한지주, DGB금융 정도에 그치지만, 규정대로 2019년까지 여유를 둔다면 대부분 합리적인 수준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다.

■ 규제측면에서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과 경쟁이 아니라, 협력·보완 관계에 있을 것

은행 수익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다. 지난 23일에 개최된 금융연구원 세미나에서는 이자이익 보다는 비이자이익, 그 중에서도 수수료 수익 확대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있었다. 세미나에서 제시된 방안은 “수수료 현실화, 신상품 개발, 금융·비금융(IT) 결합, 관계금융 및 네트워크 강화, 자산관리 및 자산운용 역량 강화” 등이었다. 우리는 이 같은 논의들이 큰 틀에서 볼 때 1) 은행 위기감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 2) 수수료 현실화 및 확대 방안에 대한 모색, 3) 계좌이동제, 핀테크 및 인터넷전문은행 출현 등 굵직한 변화가 미칠 영향에 대한 현실의 재고 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수수료 현실화’ 과제만 하더라도 공공재로 인식되는 은행서비스 특성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산업 전반의 서비스를 공짜로 여기는 국내 풍토의 개선이 없다면 ‘혁신의 동기유발’도 없다. 우리는 은행/증권의 서비스에 대한 제값 지불 관행이 척박한 시장 문화, 비공식적 규제감독이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연결되는 규제환경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를 달구어 놓은 핀테크(FinTech),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시도는 시장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이 지점에서 핀테크/인터넷전문은행은 규제환경 면에서는 기존 금융권을 위협하는 대체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져야 스스로도 좋아지는 보완제일 것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5년 9월 2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휴대폰: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

■ 애플은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발표. 애플의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

애플은 9월 10일(한국시간) 아이폰6S의 구체적인 스펙을 발표함과 동시에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즉, 24개월동안 매월 32.41달러(아이폰6S, 16GB 기준)를 내면 1년 후에는 새로운 아이폰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일종의 할부/리스/임대 형식을 복합시킨 판매 프로그램(2번의 사고로 인한 파손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애플케어 플러스'도 포함)이다. 애플 입장에서는 중고폰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더라도 이제까지와 달리 비용(일종의 보조금)이 수반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 통신업에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해석, 통신사업자와의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

하지만 수익성 하락을 각오하더라도 애플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배경은 1) 스마트폰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미국 통신사업자들이 최근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는 추세여서(표 1 참조), 고가 스마트폰의 판매를 위한 자구책이 필요했고, 2) 또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존 사용자의 이탈을 최소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3) 미국에서는 Apple Store의 수가 충분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존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조금 제도와 교체 프로그램 제도 등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애플이 통신업에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해석되어 기존 통신사업자와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 Sprint와 T-Mobile은 애플의 새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교체 프로그램을 내놓음

이러한 애플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Sprint와 T-Mobile은 파격적인 교체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즉 Sprint의 'iPhone Forever Revolution' 프로그램은 22개월 약정에 월 22달러를 내면 신형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고객에게 신형 아이폰을 빌려주는 것이고(최근에 Sprint는 월 15달러로 인하), T-Mobile의 'Jump on Demand' 프로그램은 18개월 약정에 월 20달러에 아이폰을 임대해 주는 것이다(최근에 T-Mobile은 5달러에 신형 아이폰6S를 구매할 수 있는 파격적 보상판매 프로그램도 내놓음).

■ 대형 통신사업자들과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조만간 대응책을 내놓을 전망

1) 애플의 새 프로그램의 경우 사용자가 통신사업자를 제한없이 선택할 수 있고, 2) 이에 따라 통신요금이 낮은 통신사업자로 가입자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3) 통신사업자의 경우 가입자당 유치비용(SAC, Subsidy Acquisition Cost)이 보조금 지급액보다 큰 점 등을 감안하면 Verizon과 AT&T 등 대형 통신사업자들은 조만간 대응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또한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경우에도 애플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프로그램 도입 등의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결론적으로 휴대폰 업종에는 부정적인 이슈로 판단

스마트폰 성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타난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조만간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도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쟁구도의 변화는 스마트폰 수요 확대를 가져오지만 반면 통신사업자들과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비용증가도 수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의 시행은 휴대폰 업종에는 부정적 이슈로 판단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5년 9월 2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KT(030200)

매수(유지)

목표가: 38,700원(유지)

종가(9/24): 29,800원

3Q15 Preview: 예상치에 부합한 양호한 수익 전망

■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 수준으로 전망

3분기 영업실적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조 4,932억원, 3,451억원으로 시장 예상치와 비슷할 전망이다. 통신 시장에 과열경쟁이 없어 이익 변동성이 줄었다. 영업이익은 마케팅비용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유치 경쟁이 완화돼 마케팅비용이 7.1% 줄어들 것이다. 순이익도 금융손익 개선으로 호전될 전망이다.

■ 15년 수익은 단통법, 구조조정 효과로 12년 수준 회복 예상

4분기에도 마케팅경쟁 완화로 수익성 호전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15년 수익은 단통법과 구조조정 효과로 수익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다. 15년 영업이익은 1조 1,770억원으로 12년 수준(KT렌탈과 KT캐피탈 제외 기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14년 4월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분기별 인건비는 1,250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생겼다. 13년, 14년에 각각 6천억원을 상회한 일회적 비용(유형자산 처분손실 등)이 15년에는 2,500억원 수준으로 줄어 순이익도 호전될 것이다.

■ 미디어 수익 개선, 금융비용 감소도 수익 호전 요인

미디어 수익 개선과 금융비용 감소도 수익 호전의 요인이다. IPTV는 수익성이 개선돼 16년에는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미디어 사업이 유료방송 가입자 합산규제(8월 점유율 29.6%, 18년 5월까지 33.3%로 제한)로 성장성이 제한되는 점은 부담이다. 하지만 가입자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와 마케팅비용 감소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KT렌탈, KT캐피탈 매각으로 순차입금이 14년 10.9조원에서 15년 6.8조원으로 줄어 연간 1,100억원의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38,700원 유지

KT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38,7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12MF EBITDA에 목표 EV/EBITDA 3.7배(과거 4년 평균을 11.6% 할인)를 적용해 산출했다. 15년에는 배당을 재개(500원 추정)할 것이다. 부동산과 구리선 가치만 9조원에 달하는 자산주로 부동산 시가(시가 8.1조원, 장부가 3.3조원)를 반영한 PBR이 0.4배로 낮다. 리스크 요인은 유선전화 매출 감소와 ARPU 성장세 둔화다. 단통법 도입 이후 신규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유입이 줄었고, 요금 할인 선택제 가입자가 늘어 분기별 ARPU 증가율이 1% 이하로 낮아졌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3A	23,811	839	(162)	(666)	NM	4,460	NM	3.9	0.6	(1.4)	2.5
2014A	23,422	(292)	(1,055)	(4,316)	NM	3,563	NM	5.4	0.7	(9.5)	-
2015F	21,856	1,177	737	3,009	NM	4,543	9.9	3.4	0.7	6.9	1.7
2016F	21,918	1,327	562	2,295	(23.8)	4,668	13.0	3.2	0.6	5.0	2.0
2017F	22,062	1,403	701	2,861	24.7	4,717	10.4	3.1	0.6	6.0	2.3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5년 9월 2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SK텔레콤(017670)

매수(유지)

목표가: 313,000원(유지)

종가(9/24): 261,500원

3Q15 Preview: 수익성, 배당, 자사주의 삼박자

■ 3분기 영업실적은 시장 예상치 수준으로 추정

3분기 영업실적은 대체로 시장 예상치 수준으로 추정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4조 2,855억원, 5,180억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각각 1.5%, 2.3% 하회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5.5% 증가할 전망이다. 3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에 반영된 일회성 명예퇴직금 1,100억원을 제외하면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수익이 양호했던 14년 3분기와도 유사한 수준이다. 양호한 수익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 하반기 영업이익은 상반기 대비 25.1%, 16년은 13.4% 증가 전망

3분기 영업이익은 4분기만에 5천억원대를 회복할 것이다. 단통법이 안착해 구조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감소해 수익 호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단말지원금과 리베이트가 규제되고 있어 가입자 유치비용이 줄고 있다. 개통 가입자 중 기기 변경 비중은 1분기 38%에서 4월 이후에는 56%로 상승했다. SK텔레콤에 우호적인 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경쟁 완화로 15년 하반기 영업이익은 상반기 대비 25.1% 늘고, 16년은 전년 대비 13.4% 증가할 전망이다. 15년 들어 스마트홈, 원격 시설물 관리, 원격 검침, 웨어러블(스마트워치 등) 등 사물인터넷(IoT) 사업을 늘려가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16년 이후 뉴미디어, 커머스과 함께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 연말 배당, 5,282억원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에 주목

연말 배당 메리트가 부각될 것이다. 15년 배당은 14년보다 600원 늘어난 10,000원으로 추정한다. 배당수익률은 3.8%로 높다. 24일 SK텔레콤은 9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자사주 202만주(지분율 2.5%, 5,282억원)를 매입하기로 공시했다. 16년 2,000억원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가정하면 15년 9월부터 16년까지 자사주 매입은 7,282억원에 달한다.

■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313,000원 유지

SK텔레콤에 대한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313,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조정이익 기준 적정주가 251,879원(PER 13.8배 적용)과 SK하이닉스 지분가치 61,027원(15% 할인)을 더해 산정했다. 최근 주가는 경기방어적 성격, 배당 메리트 등이 부각돼 반등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으로 수급여건이 호전될 것이다. 16~17년 평균 EPS 증가율 17.7%를 감안시 12MF PER 9.5배는 낮다. 리스크 요인은 ARPU 성장세 둔화와 SK하이닉스 기업가치 감소다. 단통법 도입 이후 신규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유입이 줄고 요금할인 선택제 가입자가 늘어 분기별 ARPU 증가율이 1% 이하로 낮아졌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3A	16,602	2,011	1,639	23,211	40.5	4,841	9.9	4.5	1.2	13.0	4.1
2014A	17,164	1,825	1,801	25,154	8.4	4,717	10.7	5.5	1.3	12.9	3.5
2015F	17,161	1,836	1,760	24,475	(2.7)	4,796	10.7	5.1	1.2	11.9	3.8
2016F	17,454	2,081	1,998	28,611	16.9	5,010	9.1	4.6	1.1	12.8	4.2
2017F	17,645	2,261	2,366	33,877	18.4	5,102	7.7	4.3	1.0	14.1	4.2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5년 9월 2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송승연(seungyeon.song@truefriend.com) ☎ 02-3276-6273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9/18(금)	9/21(월)	9/22(화)	9/23(수)	9/24(목)	9/25(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95.95	1,964.68	1,982.06	1,944.64	1,947.10	1,942.85
	등락폭		19.46	-31.27	17.38	-37.42	2.46	-4.25
	등락종목	상승(상한)	548(0)	245(2)	558(3)	173(6)	451(1)	435(1)
		하락(하한)	255(0)	570(0)	248(0)	652(0)	356(0)	343(1)
	ADR		122.04	123.77	120.22	104.70	103.04	97.93
	이격도	10 일	102.80	100.76	101.12	99.16	99.36	99.13
		20 일	103.94	101.96	102.50	100.43	100.46	100.22
	투자심리		60	60	7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524	376	696	857	921	790
	거래대금	(십억 원)	6,808	3,858	4,535	5,434	5,081	4,177
코스닥	코스닥지수		690.18	688.90	693.67	680.28	683.88	682.70
	등락폭		19.13	-1.28	4.77	-13.39	3.60	-1.18
	등락종목	상승(상한)	548(6)	245(10)	558(6)	173(8)	451(5)	523(4)
		하락(하한)	255(0)	570(0)	248(0)	652(0)	356(0)	473(1)
	ADR		128.99	131.64	123.72	108.80	106.70	100.75
	이격도	10 일	103.74	102.92	102.79	100.51	100.81	100.44
		20 일	103.73	102.95	103.29	101.20	101.66	101.52
	투자심리		60	60	7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728	718	931	1,028	869	630
	거래대금	(십억 원)	4,366	3,520	4,009	4,126	3,659	2,886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355.1	894.3	864.3	239.0	106.5	192.9	60.0	9.6	256.318
	매도	2,268.9	1,197.5	709.8	122.2	135.6	176.0	58.9	13.7	203.4
	순매수	86.1	-303.1	154.5	116.8	-29.1	16.9	1.1	-4.1	52.9
	9월 누계	-102.8	-1,916.4	2,105.5	396.5	139.9	469.8	-158.0	20.4	1,236.8
	15년 누계	3,415.4	472.3	-4,645.3	-4,761.2	-862.8	-4,154.1	-861.7	-920.5	6,914.9
코스닥	매수	2,657.0	150.5	88.3	18.5	11.4	28.3	4.6	2.0	23.5
	매도	2,580.8	180.0	127.6	23.6	20.2	37.8	13.5	3.8	28.7
	순매수	76.2	-29.5	-39.3	-5.1	-8.8	-9.5	-8.9	-1.9	-5.2
	9월 누계	760.1	-145.9	-517.3	-152.3	-41.3	-203.9	-35.3	3.4	-87.9
	15년 누계	1,811.6	-772.3	582.0	-529.1	348.8	772.1	-84.8	-274.1	349.1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21,953	증권	-2,280
전기,전자	3,839	운수창고	-2,277
제조업	2,971	금융업	-2,017
KODEX 200	31,411	SK하이닉스	-5,421
현대차	8,107	아모레퍼시픽	-5,263
SK	6,237	다우기술	-2,363
현대모비스	6,111	삼성물산	-2,172
삼성SDI	5,465	아모레G	-2,033

연		기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43,202	서비스업	-9,674
운수창고	10,181	의약품	-9,077
전기가스업	6,461	건설업	-3,612
현대차	24,273	SK	-15,335
현대모비스	11,692	한미약품	-7,281
현대글로벌비스	8,810	LG생활건강	-4,058
한국전력	6,912	삼성전자우	-3,594
삼성전자	6,608	SK이노베이션	-3,197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865	통신업	-1,836
전기,전자	814	건설업	-1,183
서비스업	630	운수창고	-579
TIGER 경기방어	3,014	KT	-1,821
KODEX 레버리지	2,780	현대건설	-1,020
제일기획	891	한미약품	-553
삼성전자	478	팬오션	-465
삼성SDI	471	호텔신라	-369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1,399	서비스업	-19,438
운수창고	6,787	전기,전자	-14,147
화학	2,878	보험	-4,731
현대차	7,981	SK	-16,086
현대글로벌비스	6,651	삼성전자	-11,451
현대모비스	4,814	삼성화재	-3,223
LG	2,747	S&T모티브	-3,161
LG화학	2,441	CJ	-2,198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92,812	서비스업	-19,565
전기,전자	38,365	의약품	-10,310
화학	19,535	음식료품	-1,479
현대차	51,863	SK	-22,732
삼성전자	35,493	한미사이언스	-8,857
현대모비스	25,536	한미약품	-8,128
KODEX 인버스	22,440	아모레퍼시픽	-6,783
현대글로벌비스	15,561	한화테크윈	-4,330
LG화학	11,372	삼성화재	-4,284
삼성SDI	10,341	SK하이닉스	-3,930
한국전력	10,200	LG생명과학	-3,092
한화케미칼	9,438	한화	-2,976
LG	8,368	현대제철	-2,875

외		국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창고	4,336	전기,전자	-115,743
음식료품	3,898	운수장비	-42,737
건설업	1,320	서비스업	-30,230
한미사이언스	5,545	삼성전자	-80,605
SK텔레콤	4,614	POSCO	-30,351
현대글로벌비스	3,815	SK하이닉스	-25,837
한미약품	3,308	현대차	-25,640
LG이노텍	2,384	LG화학	-13,179
농심	2,302	삼성물산	-12,885
다우기술	2,225	SK	-12,361
SK케미칼	2,098	삼성SDI	-9,454
대우조선해양	1,868	KODEX 200	-8,769
한화테크윈	1,783	LG	-7,86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1,087
금융	1,046
의료,정밀기기	862
에스엠	1,092
한국토지신탁	1,046
메디톡스	898
포스코캡텍	764
OCI머티리얼즈	698
전문기술	-3,132
제약	-1,964
인터넷	-1,245
CJ E&M	-2,791
다음카카오	-1,360
솔브레인	-1,191
제이콘텐트리	-1,031
휴온스	-792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2,216
소매	679
도매	580
이엔에프테크놀로지	1,339
파라다이스	918
솔브레인	709
서부T&D	679
CJ프레시웨이	611
출판,매체복제	-5,271
제약	-2,824
일반전기전자	-1,504
로엔	-5,252
메디톡스	-1,999
에이치엘비	-1,504
바이넥스	-1,258
선데이토즈	-931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서비스	201
금융서비스	88
인터넷	66
한국전자금융	201
이베스트투자증권	74
솔브레인	65
다음카카오	62
네오위즈홀딩스	46
일반전기전자	-2,053
제약	-274
금융	-111
보성파워텍	-2,053
동화기업	-136
한국토지신탁	-111
셀트리온제약	-96
오스코텍	-92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435
반도체	148
의료,정밀기기	101
동화기업	713
다원시스	593
OCI머티리얼즈	573
루트로닉	390
휴온스	380
화학	-2,726
도매	-1,949
오락,문화	-1,318
솔브레인	-2,694
CJ프레시웨이	-1,599
제이콘텐트리	-1,023
CJ E&M	-872
CJ오쇼핑	-850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의료,정밀기기	1,620
정보기기	739
금융	664
에스엠	1,888
이엔에프테크놀로지	1,471
다원시스	989
동화기업	809
뷰웍스	726
인트론바이오	722
한국토지신탁	664
위메이드	649
휴맥스	561
서부T&D	552
제약	-9,096
출판,매체복제	-5,433
일반전기전자	-4,796
로엔	-7,314
CJ E&M	-4,314
솔브레인	-3,879
바이넥스	-3,057
제이콘텐트리	-2,667
메디톡스	-2,655
에이치엘비	-2,457
보성파워텍	-2,053
파트론	-1,734
다음카카오	-1,599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4,288
소프트웨어	3,639
디지털컨텐츠	3,589
다음카카오	3,943
컴투스	3,487
젬백스	2,642
한국사이버결제	2,074
오스탐임플란트	1,455
이오테크닉스	1,362
바이로메드	1,219
씨젠	1,072
다우데이타	1,050
이지바이오	927
화학	-12,829
제약	-11,009
방송서비스	-2,971
솔브레인	-10,613
셀트리온	-7,634
CJ E&M	-3,048
CJ오쇼핑	-2,907
메디톡스	-2,274
한국전자금융	-2,118
에스엠	-1,945
인바디	-1,725
코스온	-1,708
메디포스트	-1,309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일성신약	49 일	넥센타이어	22 일
롯데제과	33 일	동국제강	13 일
대덕GDS	28 일	한국셀석유	13 일
삼성SDI	23 일	대한제강	10 일
화신	17 일	아모레퍼시픽	10 일
LG화학	16 일	한국철강	10 일
한화케미칼	13 일	모토닉	9 일
현대미포조선	12 일	삼성정밀화학	8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SBS콘텐츠허브	14 일	KCC건설	13 일
평화정공	6 일	포스코캠텍	10 일
성광벤드	5 일	이오테크닉스	8 일
파라다이스	5 일	다산네트웍스	7 일
우주일렉트로	5 일	아트라스BX	5 일
휴맥스	5 일	한국토지신탁	5 일
젬백스	4 일	다음카카오	5 일
KTH	3 일	신화인터텍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167,396	아모레퍼시픽	39,647
LG화학	113,013	KB금융	17,737
현대차	109,056	POSCO	13,603
현대모비스	64,325	아이마켓코리아	12,912
삼성SDI	57,107	삼성생명	11,039
POSCO	56,800	NH투자증권	9,124
현대글로비스	49,512	다우기술	8,760
KT&G	36,731	LG전자	8,058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파라다이스	5,787	다음카카오	11,487
에스엠	5,015	다우데이터	6,270
오스템임플란트	4,332	웹젠	4,832
셀바이오텍	4,230	인터파크홀딩스	4,668
인트론바이오	3,811	이오테크닉스	4,655
이엔에프테크놀로지	3,705	아프리카TV	4,601
아이크래프트	3,047	나이스정보통신	2,508
에스에프에이	2,526	한글과컴퓨터	2,244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창고	14,804	4,336	19,140
현대글로비스	15,561	3,815	19,375
코웨이	989	1,351	2,341
현대건설	1,174	715	1,889
크라운제과	704	1,085	1,788
삼성증권	745	824	1,569
SKC	1,321	225	1,546
코오롱인더	1,160	264	1,424
금호타이어	835	328	1,163
보해양조	498	664	1,162
동원시스템즈	599	548	1,146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디지털컨텐츠	72	3,589	3,661
정보기기	739	353	1,093
여행운송	263	377	640
컴투스	175	3,487	3,662
젬백스	19	2,642	2,661
한국사이버결제	111	2,074	2,185
이엔에프테크놀로지	1,471	629	2,099
오스템임플란트	371	1,455	1,826
다원시스	989	196	1,185
뷰웍스	726	257	983
휴맥스	561	317	877
KG이니시스	373	444	817
오르비텍	373	424	79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SK	19 일	부광약품	24 일
대한항공	12 일	SK	16 일
삼영전자	8 일	한화화인케미칼	12 일
KODEX 콩선물(H)	8 일	KStar 200	8 일
현대제철	7 일	도레이케미칼	7 일
OCI	7 일	STX	7 일
대우인터내셔널	7 일	포스코플랜텍	7 일
한화	6 일	SK이노베이션	7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다음카카오	16 일	서울반도체	22 일
토탈	13 일	KH바텍	9 일
동서	7 일	성우하이텍	6 일
원익IPS	5 일	유진기업	5 일
인터파크홀딩스	5 일	동양시멘트	5 일
이오테크닉스	5 일	한진피앤씨	5 일
셀트리온	5 일	메디포스트	5 일
차바이오텍	5 일	SBS콘텐츠허브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SK	-49,236	삼성전자	-339,821
삼성물산	-37,636	현대차	-131,694
KODEX 레버리지	-35,821	SK하이닉스	-98,169
아이마켓코리아	-30,795	LG화학	-82,441
SK하이닉스	-24,161	SK	-62,041
현대제철	-19,391	삼성물산	-46,373
LG디스플레이	-18,521	KT&G	-34,320
아모레퍼시픽	-16,141	삼성SDI	-31,723

KOSDAQ			
기	관	외	국 인
로엔	-18,346	원익IPS	-18,045
동서	-17,985	셀트리온	-8,460
셀트리온	-8,444	솔브레인	-7,632
다음카카오	-7,931	바이오랜드	-5,341
MPK	-6,138	에스엠	-5,262
보성파워텍	-5,916	코스온	-5,004
CJ오쇼핑	-5,039	성우하이텍	-4,781
CJ E&M	-4,741	서울반도체	-4,572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서비스업	-19,565	-30,230	-49,795
통신업	-897	-450	-1,348
보험	-571	-660	-1,231
SK	-22,732	0	-22,732
SK하이닉스	-3,930	-25,837	-29,767
LG생활건강	-1,464	-6,229	-7,693
아모레G	-920	-5,428	-6,348
하나금융지주	-1,789	-3,639	-5,428
LG유플러스	-1,099	-3,528	-4,627
현대제철	-2,875	-961	-3,836
현대중공업	-612	-3,087	-3,699
CJ CGV	-2,736	-962	-3,698
코오롱	-2,681	-910	-3,591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9,096	-11,009	-20,105
화학	-1,276	-12,829	-14,104
출판,매체복제	-5,433	-2,925	-8,358
솔브레인	-3,879	-10,613	-14,492
셀트리온	-1,415	-7,634	-9,049
로엔	-7,314	-1,024	-8,338
CJ E&M	-4,314	-3,048	-7,362
메디톡스	-2,655	-2,274	-4,929
제이콘텐츠리	-2,667	-51	-2,718
파트론	-1,734	-628	-2,362
코스온	-650	-1,708	-2,358
메디포스트	-748	-1,309	-2,058
인바디	-238	-1,725	-1,963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SK하이닉스	828	28,124	
현대차	87	13,817	
삼성전자	8	9,347	
한샘	31	8,925	
LG화학	32	8,668	
현대글로비스	39	7,932	
현대중공업	82	7,861	
LG디스플레이	346	7,85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로엔	36	3,022	
셀트리온	42	2,999	
코스온	95	2,810	
다음카카오	20	2,478	
삼성엘엔에스	41	1,745	
에스엠	39	1,527	
원익IPS	110	1,043	
이오테크닉스	8	973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548	3,995,181	
현대차	9,701	1,532,783	
현대중공업	11,719	1,113,303	
호텔신라	8,264	958,660	
기아차	14,314	732,875	
삼성중공업	56,851	699,264	
SK하이닉스	20,502	694,009	
아모레퍼시픽	1,771	665,74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9,715	1,387,958	
다음카카오	7,026	863,448	
CJ E&M	322	551,342	
파라다이스	11,634	265,258	
위메이드	1,487	246,144	
바이로메드	1,401	179,240	
동서	4,373	158,509	
컴투스	1,266	143,422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 O S P I			
순 증		순 감	
운수창고	3,705	섬유, 의복	-2,910
비금속광물	1,613	유통업	-2,519
전기, 전자	1,472	건설업	-1,917
현대상선	1,989	삼성물산	-4,299
동양	1,865	KODEX 200	-4,293
LG디스플레이	1,697	쌍방울	-2,656
신성통상	1,228	대우건설	-1,633
팬오션	1,030	메리츠증권	-1,300
한진해운	814	동국제강	-1,038
기업은행	695	삼성중공업	-719
아이마켓코리아	643	삼성엔지니어링	-692
대우조선해양	590	대림산업	-641
현대차	546	하이트진로	-62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순 증		순 감	
도매	1,448	종합건설	-636
소프트웨어	826	여행운송	-567
제약	767	통신장비	-544
동서	1,122	SH 홀딩스	-567
셀트리온	672	우전앤한단	-511
SGA	574	팜스토리	-463
성우하이텍	466	서희건설	-443
에코프로	433	파트론	-422
인터파크홀딩스	433	에스앤씨엔진그룹	-400
한국토지신탁	364	포비스티앤씨	-269
에스씨디	235	CJ E&M	-269
원익IPS	227	르네코	-252
원익큐브	196	씨케이에이치	-241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9/21(월)	9/22(화)	9/23(수)	9/24(목)	9/25(금)
외국인	472.3	-1,916.4	-1,035.5	-192.6	-19.8	-299.7	-220.3	-303.1
기관계	-4,645.3	2,105.5	371.8	-110.6	112.9	152.6	62.4	154.5
(투신)	-4,154.1	469.8	54.5	-11.6	-9.8	39.1	19.9	16.9
(연기금)	7,298.7	1,231.8	628.9	42.3	224.0	192.7	118.2	51.7
(은행)	-920.5	20.4	-25.1	-2.8	-5.4	-5.4	-7.3	-4.1
(보험)	-862.8	139.9	-58.9	-24.4	-9.0	-11.6	15.1	-29.1
개인	3,415.4	-102.8	1,217.3	253.7	-101.7	389.2	590.0	86.1
기타	757.6	-86.3	-553.6	49.5	8.6	-242.1	-432.1	62.5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2	2013	2014	9/18(금)	9/21(월)	9/22(화)	9/23(수)	9/24(목)
KOSPI	1,997.1	2,011.3	1,915.6	1,996.0	1,964.7	1,982.1	1,944.6	1,947.1
고객예탁금	18,014.3	14,211.8	15,842.5	21,809.0	21,157.4	21,570.7	21,512.6	21,793.0
(증감액)	334.1	-3,802.5	1,630.7	349.2	-651.6	413.3	-58.1	280.4
(회전율)	26.7	29.9	34.0	51.2	34.9	39.6	44.4	40.1
실질예탁금증감	-13,998.7	-10,125.7	-2,121.1	-257.3	-888.0	62.9	217.2	155.3
신용잔고(KOSPI)	2,202.9	2,289.7	2,533.3	3,153.9	3,137.2	3,124.6	3,155.5	3,149.9
신용잔고(KOSDAQ)	1,709.5	1,893.1	2,537.4	3,331.8	3,349.9	3,382.2	3,403.6	3,445.1
미수금	1,241.0	929.0	1,176.0	96.0	115.1	131.0	155.4	133.4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9/17(목)	9/18(금)	9/21(월)	9/22(화)	9/23(수)
전체 주식형	80,480	-482	453	-69	-108	94	14	-140
(ex. ETF)		-12	288	-46	-79	-2	36	-68
국내 주식형	62,797	-1,240	374	-75	-118	76	3	-150
(ex. ETF)		-767	214	-51	-89	-20	25	-78
해외 주식형	17,684	758	78	5	10	18	12	10
(ex. ETF)		755	74	5	10	18	12	10
주식 혼합형	9,540	-1,266	57	1	12	1	2	-30
채권 혼합형	30,853	2,980	169	7	15	-301	20	-17
채권형	84,435	9,705	-31	-24	-527	548	23	71
MMF	109,183	25,561	-2,718	-175	-1,037	-1,101	-657	-1,55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9/21(월)	9/22(화)	9/23(수)	9/24(목)	9/25(금)
한 국	1,008	-1,601	-869	-163	-17	-251	-185	-254
대 만	1,869	-56	-1,011	-337	22	-476	-220	-
인 도	3,858	-611	-274	68	-147	-195	-	-
인도네시아	-810	-427	-104	-31	-26	-47	-	-
태 국	-2,825	-337	-197	2	3	-136	-65	-
남아공	3,477	-92	-100	-24	-41	-35	-	-
필리핀	-857	-690	-50	15	-8	-33	-24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4년말	9/18(금)	9/21(월)	9/22(화)	9/23(수)	9/24(목)	9/25(금)
회사채 (AA-)	2.43	1.94	1.93	1.93	1.92	1.94	1.93
회사채 (BBB-)	8.26	7.87	7.85	7.86	7.85	7.87	7.86
국고채 (3년)	2.10	1.64	1.62	1.62	1.61	1.63	1.62
국고채 (5년)	2.28	1.83	1.79	1.79	1.78	1.80	1.79
국고채 (10년)	2.60	2.20	2.16	2.15	2.13	2.16	2.13
미 국채 (10년)	2.20	2.13	2.20	2.13	2.15	2.13	-
일 국채 (10년)	0.33	0.31	0.31	0.31	0.31	0.33	-
원/달러	1,099.30	1,162.80	1,174.70	1,179.20	1,191.20	1,192.50	1,194.70
원/100엔	920.30	970.94	974.61	983.49	989.04	999.75	1001.59
엔/달러	119.45	119.76	120.53	119.89	120.44	119.28	119.28
달러/유로	1.22	1.14	1.12	1.11	1.12	1.13	1.13
DDR3 1Gb (1333MHz)	1.34	1.09	1.09	1.09	1.09	1.09	-
DDR3 2Gb (1333MHz)	2.21	1.25	1.25	1.25	1.25	1.25	-
NAND Flash 16Gb (MLC)	2.18	1.51	1.51	1.51	1.51	1.51	-
CRB 지수	233.24	194.71	197.38	194.81	192.90	194.10	-
LME 지수	2,907.6	2,398.6	2,398.5	2,332.2	2,328.4	2,335.0	-
BDI	782	960	978	923	917	922	-
유가 (WTI, 달러/배럴)	53.61	44.68	46.68	45.83	44.48	44.91	-
금 (달러/온스)	1,185.50	1,141.50	1,133.25	1,122.90	1,131.35	1,154.5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1	22	23	24	25
美> Bullard 연준이사 연설(19일) Lockhart 연준이사 연설 8월 기준주택매매 MoM (-4.8%, -1.6%, 2.0%)		中> 9월 예비 차이신 제조업 PMI (47.0, 47.5, 47.3) 유럽> 9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52.0, 52.0, 52.3) 독일> 9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52.5, 52.6, 53.3)	美> Yellen 연준의장 연설 8월 내구재주문 MoM (-2.0%, -2.3%, 2.2%) 8월 신규주택매매 MoM (5.7%, 1.6%, 12.0%)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108.5, 107.9, 108.3)	美> George 연준이사 연설 2분기 GDP QoQ (n/a, n/a, 3.7%) 9월 미시간대 소비자지수 (n/a, 87.0, 85.7) 日> 8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0.2%, 0.1%, 0.2%)
28	29	30	10/1	2
美> Evans 연준이사 연설 Williams 연준이사 연설	독일> 9월 예비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0.0%, 0.2%)	美> Yellen 연준의장 연설 Bullard 연준이사 연설 9월 ADP취업자변동(천명) (n/a, 185, 190) 유럽> 8월 실업률 (n/a, 10.9%, 10.9%) 9월 예상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0.0%, n/a)	韓> 9월 수출 YoY (n/a, n/a, -14.9%) 8월 광공업생산 YoY (n/a, -2.0%, -3.3%) 中> 9월 차이신 제조업 PMI (n/a, n/a, 47.0) 9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n/a, n/a, 49.7) 美> Williams 연준이사 연설 9월 ISM 제조업지수 (n/a, 50.8, 51.1) 유럽> 9월 마켓 제조업 PMI (n/a, 52.0, 52.0)	美> 9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천명) (n/a, 200, 173) 9월 실업률 (n/a, 5.1%, 5.1%) 8월 제조업수주 (n/a, -0.6%, 0.4%) 韓> 9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0.9%, 0.7%) 日> 9월 본원통화 YoY (n/a, n/a, 33.3%)
5	6	7	8	9
	日> BOJ 통화정책회의 독일> 8월 공장수주 MoM	독일> 8월 산업생산 MoM	日> 8월 BOP 경상수지 8월 기계수주 MoM	美> 9월 FOMC 의사록 공개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